

### “南南갈등 해소부터 불교가 관심가져야”

고유환 교수, '통일시대 토론회' 서

“통일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불교계가 앞장 서야 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4월 28일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단장 범응)이 남북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개최한 '통일시대의 준비-국민적 지혜를 모으기 위한 대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고 교수는 “평화통일 국민통합 방안” 발표에서 “통일을 달성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그 무엇보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한마음을 모은 것이 특징”이라며 서독의 사례를 들었다. 고 교수에 따르면 서독의 경우 33000명의 정치범을 빼오기 위해 1963년부터 1989년까지 동독에 35억 마르크(한화 약 2 천억 원)를 지급했으나 서독 내에 여론은 이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고 교수는 “불교계는 가장 먼저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을 하나로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내에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이란 목표에 국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사찰 목판 일제제사 ‘첫 결실’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원(전국사찰 목판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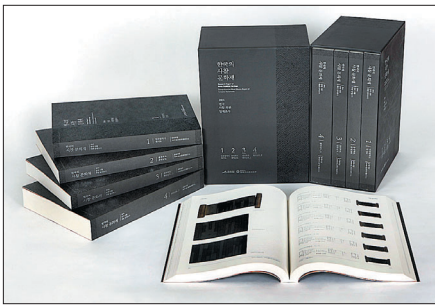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4년부터 실시한 전국사찰 목판일제 제사의 첫 결과물이 나왔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화)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최근(2014년 전국사찰 목판 일제 제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국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목판을 사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인천·경기, 충청, 전라지역 54개 사찰의 목판 9310점을 대상으로 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실린 목판 정밀기록은 총 315점으로 기 사에서 동일한 판 의 목판을 분리해 사하거나, 다른 내용의 목판을 동일 항목으로 사하는 등의 오류도 바로잡았다.

특히 2014년 사 과정에서 기 목판 외 75점의 신규 목판을 발견했으며 278점의 목판이 도난이나 화재 등의 사유로 유실된 것도 확인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찰 소장 목판 대부분이 경장(經藏)·율장(律藏)·논장(論藏)과 선사(禪師)들의 찬술서, 불교의례 관련 목판이지만 천자문·유합(類書, 한자 학습서) 등을 비롯한 사대부의 문집류도



문화재청과 체계제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전국 사찰 목판 일제제사 2014년 보고서. 인천, 충청 등 54개 사찰 9310점의 목판을 제사했다.

- 9310점 조사해 315점 자료화
- 훼손상태 및 보존환경도 기록
- 디지털이미지 변환, DB화 특징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전체 297 목판 중 간행 기록이 있는 목판은 152 으로, 고려시대 이후 불교 관련 목판 인쇄물의 간행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사찰이 단순히 불교경전을 보관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쇄물의 간행과 보관 등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룸비니 성지는 피해없지만 스와얌부나트 등 복구만 10년”

나빈 법사, 영봉 스님이 전하는 네팔 피해 현황

네팔과 북인도를 강타한 이번 대지진으로 현재까지 약 1만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렵게 현지와 연락이 닿았다. 통신시설이 마비된 탓인지 수십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했다. 자 끊겨 녹록하지 않은 현지의 상태를 가능할 수 있었다. 지진발생 3일 후인 4월 27일 진각 위력대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인 네팔로 귀국한 나빈 법사는 “태어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은 처음 본다. 아비귀환 그 자체. 언제쯤 집을 여진에 집이 무너질까 공원이나 골프장 등에 간이 천막을 치고 잔다”고 울먹였다. 이어 나빈 법사는 “네팔의 제1성지인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는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래서 108산사순례회 선목 해자 스님이 2008년 건립한 선혜학교는 다행히 별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 2성지인 스와얌부나트 사원과 제 3성지인 보르나트 사원은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다. 이들 사원은 관광업 등에 사하는 네팔 불교도들의 생계 수단인데 이후 이들의 삶이 걱정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유적지 복원에 최소 10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봉 스님 나빈 법사

영봉 스님  
세종학당에 재해대책본부 구성  
“6월부터 장마...전염병 우려”

나빈 법사  
제2,3 성지 불교 유적 무너져  
“아비귀환 자체...천막서 생활

의 일처리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스님은 지진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계 김구호선장과 김민희 연락을 취하는 한편 한국서 구호물자를 모으는데 력하고 있다. 영봉 스님은 특히 지진과 장마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걱정했다. 영봉 스님은 “네팔은 대부분의 집이 흙벽돌이기에 장마철에 추가로 붕괴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카트만두는 3개월간 장마가 시작된다. 이재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 될 것 같다. 수많은 전염병과 기아 등이 염려가 되는데 이런 인간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29일 출국 전 서울서 만난 네팔한인회 회장 영봉 스님도 “네팔은 6월부터 3개월간 장마가 시작된다. 이재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 될 것 같다. 수많은 전염병과 기아 등이 염려가 되는데 이런 인간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봉 스님에 따르면 네팔한인회도 카트만두에 있는 세 학당에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세 학당은 벽면에 금이 간 것 외에는 다행히 지진피해를 비켜갔다. 네팔한인회는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을 돕는 활동을 전개중이라고 한다. 영봉 스님은 지진 발생 직전 한국에서

김주일·노덕현 기자



네팔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파괴된 기옥의 모습. 현재 1만여 명의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체계제 사회복지재단)

### 불교계 사회법 분쟁 중재기구 문 열다

불법화해중재원, 법원 조정기관 지정

최근 불교계 분쟁이 사회법 제소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중재하기 위한 기구가 창설됐다.

대한불법화해중재원(원장 최공웅, 前 특허법원장)은 4월 23일 서울중앙법원 법원정실에서 16차 외부연계 정기관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민사 정제10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정사건이 대한불법화해중재원에 배정돼 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복잡, 다양해지는 유형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기 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불법화해중재원 관계자는 “그동안 불교 내 단 관련 법분쟁 등이 3심까지 가며 불자간, 단간 불신이 깊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정 절차가 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불교 단 간 반목이 해소돼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방송, 지구촌 곳곳에 행복 전하자”

불교방송 후원자 초청 창사 25주년 기념식

연기자 김혜옥 씨 등 공로자 감사패 전달

BBS불교방송은 불교방송 후원자들을 VIP로 초청 창사 25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4월 24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는 BBS불교방송을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후원해준 불자 250여 명이 초대돼 불교방송의 창사를 축하해 었다.

불교방송 이사장 하 스님은 기념사에서 “25년을 맞은 건 위로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아래로는 사부대중의 부단한 정진이 있어 가능했다”며 “현재 TV개설로 방송시설 확장과 새창사 불사를 위한 후원회발 이 필요하다. 관심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밖에도 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각 단 총무원장, 정의화 국회의장,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등 각계 인사들의 축하인사가 영상 메시지로 전달됐다. 자승 스님



BBS불교방송은 4월 24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회의를 개최했다.

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교방송이 창사 25년을 맞아 사육건립 추진과 방송 구역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천만 불자들의 후원으로 건립된 불교방송이 더 많은 행복과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따뜻한 성원을 보내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불교방송 진행자이자 연기자인 김혜옥 씨, 25년 동안 불교방송 법당을 지켜

온 대명화 보살 등 5명의 불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밖에도 불교방송의 사육건립과 국민통합과 평화를 발원하는 기도, 미군 중학교 합창단과 창작찬불 동요제 대상팀의 축하공연, 불교방송에 대한 공감을 풀어보는 ‘응답하라 불교방송’ 등이 이어 고 연 등 점등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제11회 경기북부 음악예찬제

## 봉선사와 한글대장경

◆일 시 : 2015년 5월 8일(금) 오후 6시 ~ 9시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특설무대  
봉축법요식 - 오후 6시 ~ 7시 / 공연 - 오후 7시 ~ 9시

◆출연제 : 박애리, 김용우, 최수정, 박윤선,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

●주최 :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주관 : 남양주시불교연합회

●협찬 : 고양시 / 구리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가평군 / 양평군 / 연천군-불교연합회 일동

☎ 대한불교조계종 제 25 교구본사 봉 선 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문의 : 031)527-1956